

東大新聞

1997년(황기 2541년) 12월 1일(월요일) 제 1238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택성 / 부주간 고창택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0561)770-2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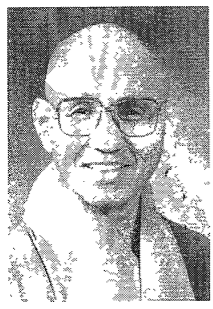
그것이
답이다

생각한 뒤에 말하며 말하는 거칠지 않아야 한다. 법(法)을 설명하고 이치를 설명하되 말한 것은 행하여 어기지 않아야 한다.

법규경 교학품 48점

송월주 총무원장 2억 기탁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등으로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송월주 스님이 오늘(1일) 본교에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담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불교종합병원 건립과 일산 캠퍼스의 조성·발전에 1억원, 경주캠퍼스 학생승려 기숙사인 석림원 건립기금으로 1억원이 가동된 것이다.

송월주 총무원장은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불교종합병원 건립과 불교인재 양성을 통해 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석구 총장은 담례사를 통해 "이번 중단에서 전달한 발전기금은 개교 9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밝힌 뒤 "중단과 학교가 진정으로 협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삼아 불교종합대학인 본교의 위상과 앞으로의 비전을 더 높이 격상시킬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중선위 오늘 선거의혹 해명

사과대 학생회 문제제기... 공청회 계획 없어

서울캠 제30대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의혹에 대해 제10대 사과대 학생회(회장=이왕재·사회4)를 비롯한 일부 소모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게 대차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공청회를 요구하며 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사과대 학생회측은 지난 선거 기간 투표율 50%미달에 따른 야간강좌 투표시간연장 및 총유권자 수의 변동발표, 문과대 유권자 수 1백명 오차에 대한 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하며 "공청회에 임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총대에서는 "오늘(1일) 각 단과대 학생회 및 학생회관 등에 자보를 통해 선거기간 발생 한 모든 의혹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떠나 양자 모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중선위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혹들을 신속하게 해명,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선위는 구준서(정치공4)·이미성(국교3)의 당선공고와 왜 불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불렸는데, 떨어졌다 봅니다"라고 무책임한 대답을 하는 등 선거전반에 걸쳐 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박병재 총대의장은 "이번 선거 기간동안 중선위의 잘못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오늘 입장표명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총대에서는 "이 문

우수 신입생 모집 주력

고교 직접방문 홍보... 특차원서접수 오는 20일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본교 역시, 98학년도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차별화된 입학전략으로 인재확보에 임하고 있다.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입학전형을 지방 8개 도시에서 동시 실시하고, 작년에 치르지 않았던 논술고사를 다시 부활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및 종합적 표현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면접고사의 비중을 보다 높여 우수 신입생 선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이 입학사책의 특징이다.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고등학교 약2백여개에 교직원 및 직접 방문, 홍보하는 한편 본교 교수들을 위촉해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30개교의 고교에 방문특강

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98학년도 입학전형은 △특차 일반전형·특별전형 △정시 일반전형·특별전형으로 대별되며 특차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2일(지방공동접수는 20.21일)까지 원서접수, 23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지방공동접수는 29·30일, '남'군 경우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논술고사와 면접고사 등을 거쳐 2월 3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지방전형 일정은 서울캠퍼스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으로 본교가 지정한 지방 원서접수처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해당 접수지역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에 한하며, 서울캠퍼스에 직접 접수한 자와 경원행정학과, 예·체능계 지원자는 반드시 서울캠퍼스 고사장에 지원해야만 한다.

전형의 평가요소는 내신성적 40%, 수능성적 55%, 논술고사 3%, 면접고사 2% 등 총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논술고사는 인문·자연계열별로 단독 과제형 1문항씩이 출제되며 면접고사에는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 계획서가 평가기준이 된다.

이번 입학요강에서는 야간강좌와 취업자전형인원이 70%까지 확대된 것을 비롯, 한국어 문학부가 국어국문학부 명칭을 개편하고 이과대 자연과학부의 물리학 전공이 물리·반도체 과학부로 편입되는 등 명칭 및 학제 개편이 단행되었다.

송총장 일본 회원대 방문

학술교류협정 체결차

본교 송석구(철학) 총장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회원대(花園)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 체결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9일에는 회원대학에서 열리는 양교 학술교류협정식에 참석하고, 10일에는 옹곡대와 공동연구 중인 '한·일 전통문화의 비교연구' 세미나에 목청매(불교학)교수, 이범산(신학)교수, 홍운식(역사교육)교수, 정대섭(역사교육)교수 등과 함께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며, 마지막 11일에는 옹곡대학에서 열리는 '한·일 양국 합동 학술교류'에서 '한국불교계가 지향하는 대학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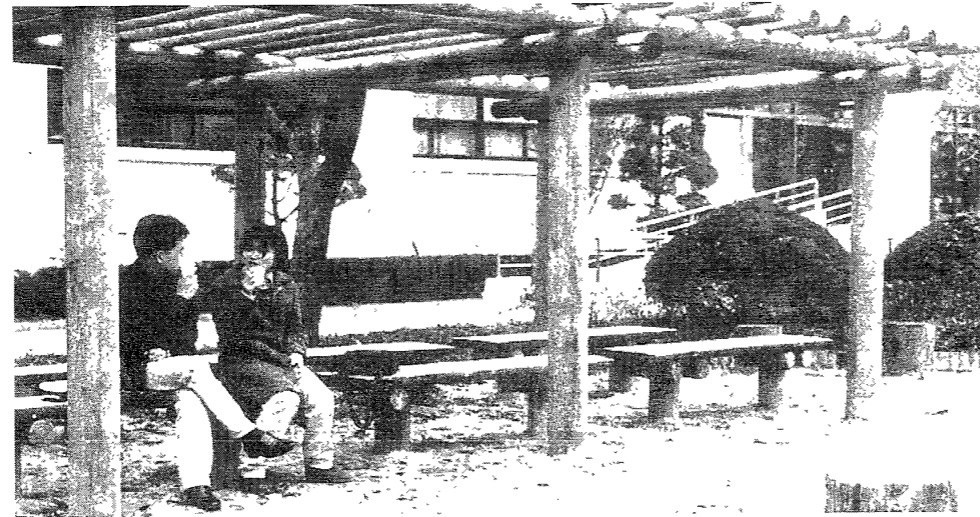
한편, 회원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에는 연구자·학생들의 교류·공동연구 및 심포지움의 개최, 학술·문헌자료의 교환, 양대학간에 합의된 기타 교류활동 등이 조인될 예정이다.

교수동정

▲박준규(교육학)=오는 5일부터 6일까지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대총장학회 주최의 통계학술대회에서 '대학생의 진로개척을 위한 상담지도'라는 주제로 강연.

▲이민중(응용생물학)=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NICEM(서울대 농과대)후원 연구원직원을 위해 일본 기후대학 방문.

▲김낙년(경제학)=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사보로학원대학 방문.



편안해요... 조경공사로 학교가 확연히 달라졌다. 동국관 옆 잔디밭과 혜회관 앞 공터,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과 동국관 사이의 계단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며졌다. 사진은 혜회관 앞 공터에서 담소를 나누어 오인택 기자

총동 '동국인의 밤' 16일 호텔 소피텔에서

총동창회(회장=황명수)는 오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제26회 동국인의 밤'을 개최한다. 호텔 소피텔 엠베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실시될 이번 행사의 회비는 3만원이며 당일 접수한다.

총동창회 지찬경 사무처장은 "97년을 마무리 하면서 전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행사이니만큼 모든 임원과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 명
◇ 의원면적 조은순(사범대 역사교육 1)
◇ 임 수습기자 김인규(사과대 사회과학계열1) 이상 11월 26일자

알 림
이번 1238호를 마지막으로 97년 2학기 신문 발행을 종결합니다. 다음 신문은 98년 1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 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현황('97.11.17-11.28)
신상두(법학4졸, 감사원감사위원)3백만원(합6백만원)
노선원(선학7졸)1백만원
오복원(동국학원이사장)1백만원(합2백만원)
정현(체육부장)1백만원(합2백만원)
조영준(경상북부조연상부)1백만원
김지영(불교신도)1백만원 김중우(불교신도)1백만원
심영희(불교신도)1백만원 이봉순(불교신도)1백만원
윤길복(불교신도)1백만원
이리이(게요(일본전진중수역사주지)432,135원(5만2천)
정해련(선학3년)1만원(합10만원)
한국RF 5백만원(합14천5백만원)
김신규(사회교육원)1백만원 최영환(불교신도)1백만원
안덕자(불교신도)1백만원 김대규(불교신도)1백만원
신중훈(연극영상학부4년)1백만원
이봉순(불교신도)1백만원 이태섭(불교신도)1백만원
김개천(이도건축 대표)1백만원
*특정목적기금
이정영(나라살유대표)5천만원-경주불교사회문화연구원연구기금
김주필(생명지원과학부교수)1천 5백만원-사회교육원
기자재구입비지원
박교수(생명지원과학부교수)1천 1만원(합 6천3백11만원)
불자교수회(회장 허창택)2백20만원-대각전 피아노 구입
박수자외42(명)에위원70만원-대각전 개원문화 지원금
정심회(교직원신행단체)1백만원-냉장고 구입
김현준(정보관리4년)1백만원-대각전 현관대금
*수증유품
관음회(여직원신행단체) 대각전법당 대형시계 기증(30만원 상당)
*동국사랑기금통기금-누계('95.12-'97.11.28현재, ₩2,955,500)
박경준(불교학부교수)36,340원
신상규(학생부처장)21,360원
김현호(일본4년)37,500원 이자라(전교직원)37,010원

개교 1백주년 기념본부

태백산맥의 첫장은 동대신문에서 열렸습니다



육체는 아랫치족을 닮고 정신은 고호의 혼을 좇아 나를 통한 절의 세계가 선으로 이은 원의 세계로 펼쳐지며 '하늘'을 움켜 잡으려합니다...

"장충공원의 벤치는 비어있었는지? 못다한 릴케의 이야기를 마저해야 하잖아?"

1963년 동대신문 제 1회 창작문학상 수상자 조정래의 당선소감중에서

第一回 本社 創作文學賞 受賞

精進을 約束하며

趙廷來

(1)

제35회 동대학술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본상 및佳作(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사회과학상:본상 및佳作(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 응모요령:2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199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 입상작 발표:1998년 1월 1일자 분지 지상

제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시부문:3편내외의 소설부분: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평론부분: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199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 시상 시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분: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분: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입상작 발표:1998년 1월 1일자 분지 지상

정보매체센터 드디어 착공

가스관 및 전선 이설 작업 등 분주 ... 롬비니관도 이달안 기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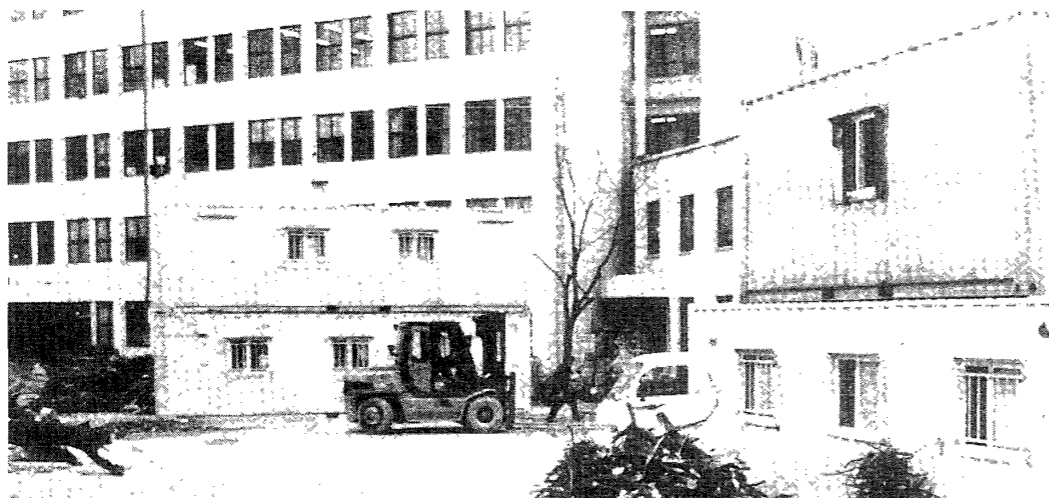
관리처(처장=김종욱) 시설과는 오늘(1일)부터 정보매체센터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역경원 및 공과대 농구장 자리에 건립되는 정보매체센터는 지난 8월 19일에 기공식이 치러졌으나 중구형의 건축허가, 공사업체 선정, 세부적 설계도면의 완성 등이 늦어져 공사착수가 지연됐다.

이로인해 내년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정보매체센터는 14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돼 99년 3월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사전준비작업으로 가스관 및 전선 등의 이설작업과 은행나무, 소나무, 자연석 등의 이식작업이 완성됐으며, 역경원 등 기존 건물 철거 후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실시된다.

한편, 정보산업대학, 종합 행정민



정보매체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가 공과대농구장 자리에서 시작됐다.

임실 및 역경원 등이 들어서는 정보매체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A동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B동으로 나누어져 건립된다.

한편, 이번 공사로 없어지는 공과대 농구장은 동계방학 중 만에 광장에 지어질 예정이다.

뒤쪽에 건립될 예정인 롬비니관(가칭)은 이번 달 안으로 기공식과 함께 실질적인 공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기간내 해야 불이익 없어

'98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교내 컴퓨터실에서 실시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수강신청기간에 분반 및 폐강 과목이 결정되므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수강정지처인원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강신청서 1.2,3학년 대상 교과목을 신청한 재학생은 상대평가를 적용받게 되는 점을 수강신청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원격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화관 1층 전자계산소 상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14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박정진·오대혁조 당선

제14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인후보한 박정진(정치학과 박사과정 1학기)·오대혁(국문학과 박사과정 1학기)조가 당선됐다.

박정진·오대혁 조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실시된 투표에서 경주 한의대·의대를 제외한 총 유권자 1천2백28명중 2백67명이 참가해 21.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2백49표(93.3%), 반대 17표(6.4%)로 당선이 확정됐다.

야총 정·부회장 학교측 징계 거부

학교 - 학생징벌위원회 재소집·야총 - 요구안 답변 촉구

야간강좌내의 취업자 전형 확대 문제가 학생회와 학교측의 극한대립으로 한지않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가운데,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선문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측에서는 지난 19일 학생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김선문·경제4 이하 야총)의 교학과 점거농성에 대한 징계로 현재 야총 학생회장인 김선문 군과 부학생회장인 정수민(신방3) 군에게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정각원에서 1백8배로 참회할 것

과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그러나 야총에서는 징계거부사를 밝혔고, 이와 관련해 14대 야총 학생회장 당선자인 이종환(전신통계)군은 "학생회는 야간강좌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기다린 것이 징계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학교의 이런 무성의한 자세는 야총 학생들로 하여금 2,3차 동맹휴업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 징계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야총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총은 요구안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이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기말고사 거부 등 보다 구체적인 강도높은 동맹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장학생 19일 선발

고시지도위원회(위원장=이순용)는 오는 19일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98학년도 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을 접수 실시한다.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계산고시사 2층 시간실에서 받으며 원서 접수시 신분증과 사진 1매, 도장을 지참해야 하고 복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략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의 과목들은 △행정고시=영어, 헌법, 국사 △외무고시=영어, 헌법, 국사 △사법시험(1학년)=외국어, 헌법, 민법총칙 △사법시험(2학년)=외국어, 헌법, 민법총칙, 형법 △사법시험(3·4학년)=외국어, 헌법, 민법, 형법이다.

동국참사람 동계 봉사단 모집

오는 12일까지 장학과 접수 ... 인증서 발급 등 혜택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97학년도 동계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재학생, 교수, 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번 봉사단원모집은 장학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봉사활동기간은 22일부터 98년 2월20일까지이다.

기간내에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결과에 따라 교양선택과목의 1학점 패스와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1월 정기노사 협의회 열려

여자 사무기능직 전환문제 재논의 예정

'97년 11월 정기노사 협의회'가 지난 24일 문화관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직원노조(위원장=김정옥)에서 제기한 안건은 △97년 복지기금 적립 △신규직원 채용 및 조교인사 사무 기능직 전환 등으로 최일우 노조 사무장은 "대부분 노조측 의견이나 학교측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수준이었으나 사무기능직 전환 부분은 차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충교섭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사무기능직 전환이란 10년여전에 타이프스트나 조무로 일하던 여직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타 직원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도 사무기능직으로 인정해 승진 등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에서는 전환기회를 추가하는 것과 전환여직원의 평가방법 명시, 전환기준의 부분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추가, 노사 협의회를 마련해 학교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전무대

되돌려~

0... '사라진 날짜들이어' 두달여전부터 도서대출기한포에 날짜가 찍히지 않고 있다는데.

대신에 학생들은 책을 빌릴 때마다 반납기한을 확인해야 하거나, 컴퓨터 검색해야 한다고.

이로 인해 대출기한 날짜를 잊어버려 제때 도서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하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행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번거로움을 늘리는 꼴(?)"

주목!!!

0...계산관 옆 계단의 대리석 교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한데 부쉬진 돌들을 방치한 채 계단공사를 진행해 계산관을 오가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고.

더욱이 계산관 옆 셋길도 사범대 소강당에서 나온 의자들을 쌓아놓아 다닐 수 없는 지경이기도.

이에 본 회전무대자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권고하기를, "가시는 길을 놓은 그 돌을 사뿐히 쓰러 밟고 가시옵소서. 돌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밟으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취업난

0... "최소한데요, 백원만 있으면 좀 주실래요?"

요즘 동악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구걸(?)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는 자신을 '그지엄마'로 소개하며 '최소하다'는 말과 달리 당당한 목소리로 돈을 '요구'한다고.

한두번도 아니고 삼삼속으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학생들은 어안이 뻔뻔.

이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한 학생을, "아줌마, 혹시 경제불황으로 생긴 새로운 업종인가?"

자기소개서

0... 이름도 바꾸고 주인도 쫓아내봤지만...

'모' 정당의 자기소개서. 신한국당 아버지와 민주당 어머니, 보수 언론 삼촌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살림살이 거덜내기, 특기는 인가떨어진 사람 모르는 체 하기, 장기는 깃털(?)이듯 날대하기, 여가시간 활용은 지식들 군대 안보 내기입니다.

이! 제 이름이 뭐냐고요? 신한국당 아버지와는 성도 다른 '한나라'입니다.

방중 외국어 특강 (1,2차)

구분	영어회화 강사 및 강의실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Intermediate	Higher Intermediate	Advanced			
1차 09:00-11:00	Angella Gato (강의실A)	Tiny Body (강의실B)	Nicholas Ganson (L206)	Martin Sherm (L309)	Dennis Photo (Lab A)	Roy Partan (Lab B)
1차 11:00-13:00	Angella Gato (강의실A)	Tiny Body (강의실B)	Nicholas Ganson (L206)	Martin Sherm (L309)	Dennis Photo (Lab A)	Roy Partan (Lab B)
2차 09:00-10:30	Joseph Schoweler (강의실A)	Leon Kaye (강의실B)	Paul Leslie (L206)	Jane Glendenning (L309)	없음	Iren Hansson (Lab A)
2차 10:40-12:10	Joseph Schoweler (강의실A)	Jane Glendenning (강의실B)	Paul Leslie (L206)	없음	Leon Kaye (Lab A)	Iren Hansson (Lab A)
수강료	5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기간	1차 : '98. 1. 5 ~ 1. 23(3주) / 2차 : '98. 2. 2 ~ 2. 27(4주)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1동 2층)					
접수기간	'97. 12. 29일부터 선착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97학년도 컴퓨터겨울특강

과목	강사	일시	기간	모집인원	접수
한글프로그래밍	황순영	98.1.5-1.9	5일	50명	실습실GG
인터넷사용법(1차)	한상훈	오전 9:30-12:30	15시간	20,000원	포함
엑셀사용법(1차)	한상훈	98.1.5-1.9	5일	50명	실습실GG
유닉스의 E-mail 사용법	신현철	오후 2:00-5:00	15시간	20,000원	포함
Visual C++	유성현	98.1.19-1.23	5일	50명	실습실GG
Windows NT	한 인	98.2.2-2.13	10일	50명	실습실EA
태터베이스 (SQL Server)	설승진	오전 9:30-12:30	30시간	40,000원	별도구입
한글프로그래밍	한상훈	98.2.2-2.6	5일	50명	실습실GG
인터넷사용법(2차)	한상훈	오후 2:00-5:00	15시간	20,000원	포함
엑셀사용법(2차)	한상훈	98.2.9-2.13	5일	50명	실습실GG
한글프로그래밍	한상훈	오후 2:00-5:00	15시간	20,000원	포함

신청자격 : 동국대학교 재학생(학생증 필히 지참)
 특강장소 : 실습실EA(원동관5층), 실습실GG(해화관1층)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접수장소 : 해화관 1층 컴퓨터교육원사무실 ☎ : 260-3852-3
 접수기간 : '97. 12. 1~12. 12 (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 제외)
 *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은 컴퓨터교육원 사정에 의해 폐강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폐강시에는 수강료 환불)
 ○ 단 폐강을 제외한 과목은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

과목	교재명	출판사	강사	구입액	가격
Visual C++	Inside Visual C++ 4.0 마이크로소프트	도서출판 삼각형	David J. Kruginski	다량문서점	20,000원
Windows NT	한글윈도우NT4 함께 배우는 SQL	도서출판 삼각형	임영지, 박현태	다량문서점	17,000원
SQL Server	한글윈도우NT4 함께 배우는 SQL	도서출판 삼각형	Jeff Perkins	다량문서점	15,000원

컴퓨터교육원

'98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 접수

- 1.신청기간: '98. 2. 19(목) - 2. 23(월)=3일간
- 2.신청자격: '97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 3.신청대상자: 가정형편, 불충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 4.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
- 5.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 6.유의사항
 - 가.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나.일반휴학기간 만료후(2학기)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원장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휴학기간 만료로 적됨.
 - 다.휴학원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교무처장

복학·재입학원 접수

- 1.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98. 2. 16(월) - 2. 18(수)
- 2.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본관3층)
- 3.구비서류:
 - 가.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나.군복학자
 - 1)기전역자 ①복학원서 1부
 - ②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전역증사본불가)
 - 2)전역예정자 ①복학원서 1부.
 - ②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
- 다.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교무처장

'민족의 미래와 유기적으로 접합하는 선택을'

민족사적 핵심과제 설정에 중점...후보별 평가 뒤따라야

우리는 지금 대통령선거라는 커다란 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구나 나라가 부도가 난 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이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지는 "경제를 망친 정부와 재벌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선거가 다가오자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 지지도가 치솟고 있다"면서 한국유권자의 반합리성을 꼬집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부도낸 장본인이 바로 재벌경제를 육성한 박정희인데 지금 '박정희 항수병'이 되살아난다고 한국을 '이상한 나라'라며 1번 머릿기사에서 비교했다. 또 그레고어 이번 선거에는 망국적 지역주의가 수그러져가 했더니 재벌이 못준다고 어느 3·4·5·6·7공화국의 핵심 권력자수인 이었던 TK원조인 김아무개의 '우리가 남인가?'식의 선동으로 지역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러한 다수 기성세대의 반이성과 반합리성의 위상승배적 작태에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소수의 이성적인 목소리는 수구반동적인 제도권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모습과는 달리 우리 대학생들만은 나름대로 거시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소재를 기준으로 이번 대선에 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거시적 안목의 준거기준 설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원료를 일부 제공하고자

의도에서 쓰여졌다. 우선 오늘의 이 역사적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족사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이 앞서야 한다.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과제들이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통일기반 조성, 민족통일 성취 △정치민주주의 차원을 뛰어넘어 일상생활 영역으로의 민주주의 확산, 제도화, 공고화 △민중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실현 △국가수준의 부도를 내게한 재벌중심의 정경유착 경제체제의 전면적 해체와 재구조화 △박정희 독재에서 비롯된 망국적인 지역주의 근절 △지구촌화시대의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의 계승, 발전 및 지구촌 문화와의 접촉 △생산가능층의 극복을 통한 생태계 보전주의와 우리의 일상적 삶의 유기적 접촉 △맹목적 근대화로 초래된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선택의 기준은 각 후보나 정당 정책이 위의 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합리적인 대응정책인지, 이 정책들이 단순히 선거용인지, 이를 수행할 권력기반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이를 권력행사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지도역량을 후보자나 그 주위의 핵심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또 과거의 민족사적 과제들(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수

립하는 것,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기반 조성, 민중의 권익을 위한 노력 등)을 위하여 방관과 냉소로 일관하였는지, 아니면 열심히 실천운동에 종사하였는지, 이도 아니면 군부독재의 하수인이나 공범자, 민족탄압의 주범, 반통일의 선봉장, 지역주의의 원흉이었던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각 영역에 대하여 각 후보별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 평가에는 각기 동일한 중요도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신이 보다 중시하는 영역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는 전략적 선택에 의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 점수화된 평가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특정한 요인이 없다면 이 기준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투표행위에는 꼭 이 기본 자료에 의존하여 투표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보다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선택은 21세기의 민족사적 핵심과제를 무엇이라고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민족의 정치세력화, 생태주의와 인본주의와의 결합, 재벌해체를 통한 경제구조의 전면적 재편, '우리가 남인가'식의 지역주의, 박정희 권력행사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지도역량을 후보자나 그 주위의 핵심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또 과거의 민족사적 과제들(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수

시사논단



박정희항수병당 등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족사적 핵심과제로 설정한 각 영역이 과연 장기적인 민족사적 구도에서 핵심과제가 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것이냐 하는 점과 또 이 하나의 핵심과제가 다른 과제를 압도할 정도로 절대적인 과제가 되는 데 있다. 「아마도 최소한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민족의 정치세력화」와 「박정희 군부독재의 재기」와 「우리가 남인가」식의 지역주의를 민족사적 핵심과제로 동일한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러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여!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꿈이다. 그 미래의 꿈은 미래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지향과 유기적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조망하는 장기적 구도하의 선택이 긴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거시적 선택이야말로 민족사의 주체로서 부여된 역사적 책무가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는 젊은 대학생들이여!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꿈이다. 그 미래의 꿈은 미래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지향과 유기적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조망하는 장기적 구도하의 선택이 긴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거시적 선택이야말로 민족사의 주체로서 부여된 역사적 책무가 아닌가 여겨진다.

사설

송월주스님 발전기금기탁 새로운 계기로

이제 정국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준비에 마음부터 바빠지는 때이기도 하다. 본교 역시 교육개혁을 비롯해 많은 일들을 추진했으며 그에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와 오류를 차분히 정리해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오늘, 동국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사안이 벌어졌다.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동국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한 것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종단의 대표가 종립대학인 본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는 일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육개혁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며 그간 미묘했던 종단과 학교간의 관계가 협력과 조화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월주스님의 발전기금 기탁은 종단개혁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종단차원의 학교에 대한 물질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간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자원을 풍부히 확보하고 있는 종단의 적극적 지원이 아쉬웠던 학교로서도 이번일을 계기로 보다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종단 역시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종립학교의 위상은 곧 한국불교의 위상과 일맥 상통한다.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라는 말도 여기서 기인한다. 뿐만아니라 본교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종합병원 건설은 모든 불자의 염원이며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종단·재단·학교의 관계가 소원한 바 없지 않았지만 이번 월주스님의 발전기금 기부를 계기로 모두 힘을 합쳐 동국발전과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종단의 지원 또한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학교는 앞으로도 확실한 비전 제시와 종단과의 원만한 관계설정으로 종단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주캠 학생회칙 수정보완 필요

본교 경주캠의 학생회칙이 허점 투성이다. 본래 학생회칙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이 학생회나 학생기구의 활동과 책무 등을 건설하게 진행하도록 그 행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85년도에 제정된 경주캠의 학생회칙이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조사의 쓰임 등의 형식적인 부분을 수정하는데 그쳐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학생회칙의 일부내용이 애매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진위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번에 걸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지난 감사와 선거에서도 학생회칙 및 선거세칙 상의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학생기구간의 적지않은 소모전과 마찰들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이는 학생회칙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작업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회칙 개정시 유의해야할 점과 시급히 개정해

야할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타대학의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는 한편 본교 회칙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정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결코 안되며 또한 개정 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와 관련된 모호한 부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선여부의 기준이 모호하고, 후보자 자질여부의 분명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감사권을 둘러싼 회칙 내용 중 그 권한과 책무상의 규정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 학부학생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 결과가 학부학생회를 건설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더이상 학생회칙이 학생들과 동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새롭게 보완하고 수정되어 학생회칙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길 기대해 본다.

'98 학생회 선거 분석

한총련 주류계열 우세

학생운동 계열·정파초월한 '단결'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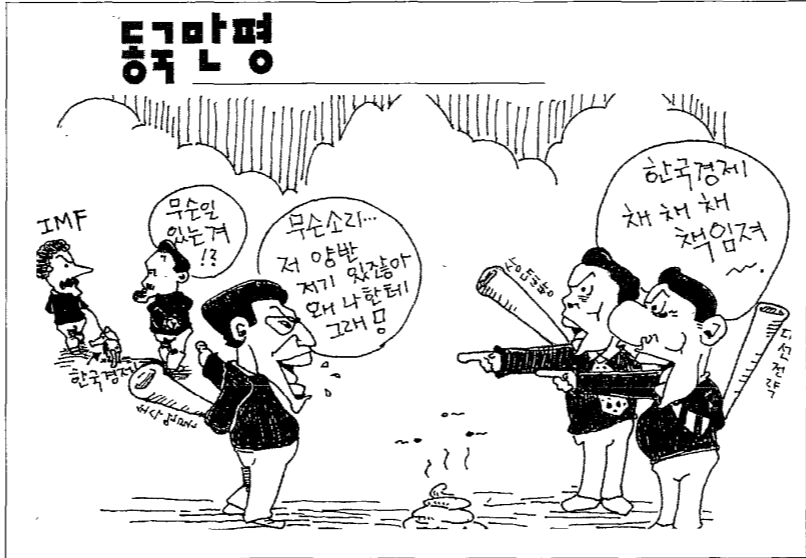
96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학생운동권'의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현재까지 학생회 선거가 끝난 대학의 결과, 정파를 떠나 운동권 성향을 가진 총학생회가 당선된 대학은 66개, 비운동권이 당선된 대학이 19개 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대기권 자체 집계 11월, 29일 0시현재). 이 중 한총련 주류계열은 현양대, 경북대, 충남대 등 32개 대학에서 당선됐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에서 민주민주계열이 당선됐다. 자주계열의 비주류로 불리는 사립사랑은 7개대학에서 당선됐다. 이번이 고까지 표현되는 이런 결과는 일각의 여론과는 달리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학생회선거는 검찰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가면서 계속된 학원지권 탄압과 검거열풍 속에서

치워졌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이 학내로 난입해 서울대 총학생회 당선자인 정병도·배병화 군을 강제연행한 사건과 한양대 총학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자주계열' 후보인 조영호·이주현 군을 역시 학내침탈을 통해 강제연행해 간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공안당국의 직접적인 탄압과 함께 교육부가 출범식 이후 내놓은 학생지도지침에 의해 선거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 대학도 있다.

올해 선거에서는 '이번'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두가지 있었다. 그 하나는 '한총련 핵심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대와 조선포대 10년만에 처음으로 한총련 비주류계열에게 총학생회자리를 내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5기 한총련총합식과 이식 씨 사망사건의 현장이었던 한양대에서 한총련주류 후보들이 옥중당선된 것이다.

전남대와 조선포대는 지난 몇 년간 공안탄압이 집중된데다 한총련, 남총련의 잠을 2년동안 연임함으로써 사립의 파부



하와 과학생회 약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양대의 경우 학생운동의 변화, 혁신의 지점을 학우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학우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총학생회선거에서 당선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 학생들의 정서가 학생운동 특정 정파에 대한 반감이나 무관심이 아닌 전반적인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호르고 있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선거를 치른 대학 중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한 대학이 90%를 넘는다는 사실은 그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다시한번 학생운동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제 총학생회당선자들은 내년 학생운동을 준비하면서 계열과 정파를 떠나 '단결'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부

'김씨 아줌마네' 거니까!



올해로 20년째, 김씨 아줌마는 요즘도 새벽3시면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날 팔다 남은 생선은 다음날 팔지 않는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이 동네에서 몇십년째 사십니다 다른 생선가게에 기본 적이 없답니다. 김씨 아줌마네 생선은 신선하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20년 단골의 이유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큰 믿음은 시작됩니다. 쌓음은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소중히 가꾸어 자신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를 만듭니다 **쌍용**

동약력



12월 18일

"아, 너 이번에 누구 찍을거냐?"
 "선거도 다 끝났는데 찍긴 누굴 찍어."
 "아니... 대통령 선거말야, 대통령"
 "아... 그거? 나 투표 안 할거야. 도대체
 맘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날 애들하고
 놀러가기로 했어. 너무 같이 갈래?"
 수업과 마찬가지로 내러오는 두
 학생의 대화. 이같은 내용은 이제 어느 곳
 에서라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학생은 선
 거 안하는 집단'이라는 말까지 스스럼 없
 이 사회에 퍼지고 있는 현실이다.

오는 12월 18일은 15대 대통령 선거 투
 표일.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의 시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그렇기에 유권자 모두의 이성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에선 대통령
 선거 유권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다.

자하철안, 대학생으로 보이는 3~4명이
 대선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난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내 권리를 행
 사할꺼야. 솔직히 난 찍을 만한 사람이 없
 거든"
 "그렇다고 투표 안하면 되나. 그냥 아무
 나 찍어... 아무나..."
 "대선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나, 그냥 미
 텅이나 할래?"
 투표거부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학생
 부터 아무나 찍겠다는 학생까지, 심지어
 아예 투표를 안하겠다는 학생도 있다.
 그들의 말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 한 분
 이 "학생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젊은이
 들이 투표 안 하면 보나 마나 뻔한 일이
 야. 불을 보듯 뻔하잖아..." 하며 한마디 던
 진다.

참정권이란 이성적인 판단 아래 투표를
 통해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
 하는 것이지, 무관심이나 무비판적인 사고
 에 기인한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대학
 생, 대학생의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의 미
 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할 뿐이다.
 김용환 기자

인터넷에서 돈벌려면 신뢰도 높여라

수량·종류 제한적인 인터넷상거래... 가상상점·모니터링·소비자보호기관 필요

최근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
 한 증가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상거
 래 시장규모에 대한 포레스트 리서치사의
 자료(1997)에 의하면 인터넷 관련 전체시
 장이 1996년 140억 달러 규모에서 2000년
 에는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며,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6억 달러에서 2000
 년에는 66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소비자와 공급
 자에게 기존의 상거래와는 비교되는 기회
 를 주는 동시에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
 다. 소비자에게는 세계 시장으로의 전자적
 접근을 가능케 하고 효율적인 구매, 더욱
 광범위한 선택, 개인화된 서비스, 그리고
 경쟁화된 낮은 가격의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지불 방
 법의 문제, 결합 있는 상품에 대한 손해배
 상 문제 등 기존의 상거래와는 다른 문제
 에 직면할 수 있다.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
 면, 전통적인 유통 경로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의존해야 했으나, 전자 상거래에서는 자동
 화된 소비자 셀프서비스 특성으로 인하여
 중간 경로가 필요 없어지고 보다 다양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현

재 인터넷 상거래의 대표적인 형태는 사
 이버몰이며 미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
 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96년 6월 최초로
 가상상점을 개점한 '인터넷파크'와 몇 개의
 가상상점이 열려 있으나 아직은 취급상품
 의 다양성과 서비스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경
 을 넘는 인터넷 국제상거래에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신뢰성 문제, 유통비
 용문제, 보안문제, 그리고 국가간 법률적
 제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소비자들
 로부터의 신뢰성 확보 문제는 인터넷 상거
 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상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크게 나
 누면 소비자에게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적 문제와 비록 주문된
 상품이 도착했다 하더라도 선전된 것과
 동일한 것이나 하는 기능적 문제, 그리고
 상품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신
 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신
 의 문제로 인해 현재 국내외의 인터넷 상
 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이 책과 잡
 지 같은 비교적 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가 심하지 않고 값이 저렴하며, 표준화된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뢰성의 증대 없이는 인터넷 상거
 래는 결제시스템과 같은 요소 기술의 해
 결과 상관없이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 있
 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터넷 상거래 상에서 신뢰성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계약상에서의 신뢰성 문제는 명성
 (reputation)과 상표명(brand name)이 증대
 할 경우 감소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
 다. 따라서,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 위험을 줄이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이 필요하다.

첫째, 명성이 적은 중소기업 제품을
 개별적 판매보다는 가상 상점에서 판매하
 게 한다. 단일 가상 상점의 운영자의 통제
 (control)와 관찰(monitor)역할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의 가상 상점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하게 된다. 즉, 명성이
 있는 가상 상점의 운영자는 가상상 전체
 의 신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각 점포
 에 대한 상품의 질과 서비스에 대하여 많
 은 정보를 수집하고 컨트롤하게 된다. (예
 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인터넷 상거
 래에서 개별적인 판매 체계보다는 물의



형태로 가상 시장을 구축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명성을 갖고 있는 독
 립된 제3의 외부 모니터가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발행하면 소비자의 정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TRUSTe라
 는 회사는 인터넷 상의 사이트와 모니터계
 약을 하고, 그 계약을 준수하는 인터넷 사
 이트에 TRUSTe라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
 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셋째, 미
 국의 소비자보호 단체인 BBB와 같이 사
 이터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이 존재한다면 가상물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도는 증가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함에 따라 많
 은 기업들이 인터넷상에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
 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수량이나 종류
 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는 사
 실을 알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
 은 어려운 일이며, 결제시스템과 같은 요소기술의
 미비에도 원인이 있지만 소비자로부터 신
 의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것
 은 미국의 인터넷 상점들이 미국내 고객
 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성
 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 신
 의성제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
 다.
 김석태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평 - '12·12, 5·18 재판과 저항권'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정치논리 탈피위한 길 제시



쿠데타를 단죄하지 않고 기정사실 그대
 로 뇌물 정도로 무기력한 국민이 민주주
 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2·12, 5·18 재판에 의한 전·노 두 사
 람을 비롯한 내란 도발자에 대한 재판의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역사적 심판은 우리가 아주 심각
 하게 받아 들이고 그 의미를 우리 시대의
 유산으로 얼마나 소화해 내는가 하는 점
 에도 우리의 과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함상범 교수가 주관해 꾸민 '12·12, 5·
 18 재판과 저항권'은 아주 주목되는 알찬

책이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그 교
 훈과 문제점을 기록한 현장기록에 대해
 꼼꼼하고 성의있게 임하지 못하는 헛점이
 있다. 4·19만해도 우리는 그 역사의 기록
 을 알차게 챙겨오지 못하고 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그 사건구조와
 성격이 우리의 인권상황에서 무엇을 의미
 하는가를 교훈으로 삼지 못해서 악순환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이번에 내 놓은 책에
 서는 내란, 반란 등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항한 국민 저항권의 의미,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 저항을 통한 근대화의
 전진을 위한 시련을 비롯해서 내란주동자
 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그 논란경위, 기소
 와 심판의 현장 기록인 기소장, 각 심급별
 판결 및 그에 대한 언론과 필자의 논평,
 내란죄 단죄와 관련된 저서, 논문, 그 밖
 의 자료목록, 특히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공소시효계산법에 대한 소급입법문제에
 대한 판결 등까지 수록해서 참고가 되도
 록 했다.

일부에서는 '전·노 두 사람이 대통령
 까지 한 사람인데' 하면서 우회 조치를 말
 한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내란으로 대동

령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
 닌가? 그리고 그들은 광우를 피바다로 만
 든 일로부터 그들이 자행한 죄에 대해 사
 회·사과한 적도 없다. 그런데 무엇을 용
 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인가? 쿠데타가 윤행
 행한 멕시코 헌법까지도 136조에서 내란
 상태의 헌법효력회복과 내란죄의 주체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얼
 빠진 법률가는 전·노 두 사람이 대통령
 의 자리에서 자행한 가장 사실화한 행위
 의 도개비 망령 때문에 그들의 내란죄에
 대한 처리를 어찌할 바 모르고, 한편으로
 그들의 지배의 기득권을 정취한 세력의
 편에 들어서 나팔을 부는 꼴이 되고 있
 기도 하다. 그야말로 법실증주의(法實證主
 義)의 가장 나쁜면과 파시즘의 극단적주
 의의 논리만을 배워 온 한국 법리론의 한
 단면이라고 할까?

우리가 잘못된 법률관과 정치논리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도 이 책은 좋은 참고서
 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목
 격자이고 증인이 된 민주투쟁의 현장에
 대한 감성(鑑定)·평가로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허경
 연세대 법학과 교수



최근 재단의 학원에 대한 합병결정으로 이기된 항공대 사태가 걸질을 수 없는 상황
에 이른 가운데, 항공대생들이 본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대학을 방문,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본관앞에서 진행된 서명운동 모습. 유철주 기자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개최

민주화가속실천운동협의회(상임의정=
 임기단 이하) 민가협)는 아홉번째 '양심
 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오는 12월
 23일 연다.

지난 89년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12
 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기 위
 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관객과 함께 노
 래와 연극, 시낭송, 영상, 춤 등 다양한

형식과 독창적인 내용으로 시사적인 촉
 면을 뛰어넘어 예술작품으로서의 완결성
 도 높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올해는 특히 김대중 후보의 사면발언
 으로 온국민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양
 심수들을 위한 특별판(?) 자리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공연문의 민가협(763-2606)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낸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판유리·관유리·유리섬유·유리장섬유·결정유리·건축용안전유리·자동차안전유리·경질유리·실란트

대선후보 서면 인터뷰

- ① 대선자금·정치비자금
- ② 국가보안법
- ③ 양심수
- ④ 전·노 사면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정치·사회

전국대혁신문기자연합은 제16대 대통령후보들과 대학교육, 사회·정치, 경제, 통일·외교 등 분야별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 비자금, 국가보안법, 양심수, 전·노사면 등 정치·사회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요약·정리한다. 정리=사회부



양심수 문제는 법무부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국민 대화합위해 전·노사면 포용·용서필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정치자금 투명성 제도적으로 보장 세대교체 필수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민주주의 활동 막는 국보법은 폐지돼야 마땅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① 현 정국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은 3김의 부패타락 정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3김정치를 청산하고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현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동안 비자금에 한국정치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했다. 선거 때마다 거액의 돈이 사용되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부담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돈이 많이 드는 정치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인들이 축재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으로 돈을 미구르는 행태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풍토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 부패한 구시대 행태를 청산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그 누구도 '비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결론짓기 보다는 우리 정치도 깨끗한 돈으로, 성실하게 정치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위와 사회안정을 훼손하는,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가보안법상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대법원 관례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며, 대법 결정을 존중하여 국가보안법상 적용대상 행위를 한정한다면 일각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③ 양심수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단지 표를 의식해 사법권한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민가협은 그 숫자를 현재 8백여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며 매우 애매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미가 명확치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공식기관인 법무부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④ 두 전직대통령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더욱이 개인축재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비록 국가발전에 공헌했다할지라도 법은 예외 없이 엄중하게 집행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본다.

이제 부패정치로 얼룩졌던 구시대를 깨끗이 마감하고 21세기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밝은 미래 건설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사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대선자금의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인역시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책임정치가 실현되고, 여·야간의 의회정치가 활성화 되는 등 우리의 정치가 정상화·선진화 되어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는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에서 더 이상 정치자금이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일정부분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었다. 즉, 선거공영제 확대, 지정기탁금제 폐지, 소위 딱딱 수수금지 및 처벌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소모적인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의 비용을 대폭 규제하는 등의 조치가 추가로 요구되며, 여·야간 정치자금의 형평도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법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고 있는 예매보호한 규정과 포괄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어서 '합법적인 남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자의적 해석과 남용의 여지가 높아 실제로 인권과 정치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치·사회적 현실과도 괴리가 있고, 더욱이 남북교류협력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관계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합리적인 토론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그동안 우리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양심수란 공산주의를 고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확실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과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과 사상 등의 차이를 합리적인 토론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④ 전·노 전대통령의 사면문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죄과에 대한 진솔한 참회에서 우러 나오는 사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용서해 주어도 좋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사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5·18민중항쟁구속자회'가 '국민대화합을 위한 평화선언문'을 통해 '5·18 피해당사자인 우리는 대통령의 고귀권한인 사면과 관계없이 두 전직대통령을 조건없이 용서한다'고 발표한 바 있듯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용서의 정신으로 미움과 갈등을 풀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대화합을 위해 그들의 사과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어 포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한국정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물 위주의 정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독특한 정치문화를 띄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선거때 계파나 파벌의 보스가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계파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고, 당의 경비도 전적으로 당총재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충당하시피 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정권도 과거의 이러한 관례나 정치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과정에는 유권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인에게 돈을 던지려고 하기보다는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정치자금의 조성과 용도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② 남북이 대치상태에 처해 있고 대화마저 중단한 채 남조선혁명을 부추기고 있는 북한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조치를 일반적으로 폐지하고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단지 국가보안법이 법정 범죄의 목적을 떠나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는 단계에까지 이룬다면, 국민적인 합의의 도율이 쉽게 이루어져 발전적으로 보안법의 개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양심수라는 용어보다는 확산범이라는 용어가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신념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으로부터 초래될지도 모르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여 투옥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법위원회라는 외부 기관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아울러 확산범에 대한 일반의 관용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당선된다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사회적 비리를 척결하며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여 법과 질서를 지킬 때 확산범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며, 맑고 깨끗한 사회에서는 현행법보다 개인적인 신념을 우위에 두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④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생을 한가롭게 보내며 필요한 경우 국정에 자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불행한 과거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① 대선자금의 완전해결은 받은 사람과 준사람의 참여에 의한 양심적 고백만이 답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세살짜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일이다. 본인은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 응답한 사법적 절차를 거쳐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정치비자금의 문제는 민주주의 정착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형적인 정치발전으로 인한 정경유착이 그 원인이다. 사법적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역대정권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과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존재와 반공주의를 필요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으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변해온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정치 참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활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본다.

이제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해선 안된다. 더욱이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해온 많은 운동단체와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예전에 폐지되어야 했던 법률이다.

이에 본인은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국가보안법, 집시법, 특수공무부패법, 도로교통법등 국가권력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방의 입당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대통령이 한국에 양심수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리적이고 아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8백59명이라고 한다. 그 중 많은 수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등 여러 법률을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또한 김영삼 정권 들어서 구속된 사람들도 만 해도 4천명이 넘는다.

본인은 이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들은 즉각 석방되고, 사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철과 같은 '검은'인들을 보상으로 풀어주고,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국가비판자'들을 사면하려하면서 양심수에게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다.

④ 국민회의, 이회창, 심자이 조순 후보마저 전노사면을 주장한 것을 보면서 씁쓸대로 씁는 한국정치의 일면을 보게 되었다. 특히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 임기내에 전·노사면을 단행, 허투러리 동서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또 중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전·노사면 = 동서화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는 말인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결코 정치보복이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과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에 대한 정당하고도 역사적인 처벌이다. 따라서 전·노사면은 역사 정의실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 불가한 것이며, 대통령 선거시기에 정략적 차원에서 흥정대상이 될 수가 없다.

正道경영·초우량LG



난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늦은 오후, 회사 엘리베이터 안이었어. 둘만 인기 어색해 빙 둘러보다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지. 그렇게 찾아헤매던 벤처사업 아이디어가 거기 있었던 거야. 원격 감시 시스템의 원리를 응용해 바로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지. 아이디어만 좋으면 지금은 회사에서 다 대주고 잘 될 텐데 플러스 알파까지 보장해준다는 벤처사업! 그날 바로 동료 4명과 Dream Team을 만들었고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지. 결국, 도로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한 교통정보사업 아이디어로, 위우! 우린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가가 되고있거야~

LG 벤처사업 제1팀, 교통정보사업팀 진서우 대리(LG선전소속)

꿈과 아이디어가 만나면 그것은 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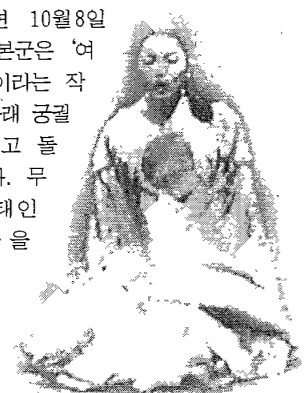
LG는 자금과 기술의 전문적 지원을 통해, 젊은 LG인의 창립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잠재해 있는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사내 벤처(Venture)사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고

명성황후, 화려한 부활
잠든 민족혼 일깨워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군은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입찰하러 궁궐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무방비상태인 궁녀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보다는 한 황후가 뛰어나가자 일본군들은 그녀를 붙잡아 폭행과 난자를 되풀이 해 시해했고 시신마저 숲으로 끌고가 불태워버렸다. 한나라의 국모가 남인의 칼에 스러져간 그것은, 진정 치욕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는 1백년이 지난후 뮤지컬속에서 되살아났다. 동양적이면서도 화려한 의상과 조명, 입체적인 회전무대, 사물놀이가 결합한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조화속에 그녀의 생은 노래가 되어 몸짓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것이다. 진경궁의 곳간, 정자에 어우러진 사물놀이패, 풍부한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진 한국음악 등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었으며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하얀 상복을 입은 '명성황후'가 코러스와 함께 하는 '백성들이여 일어나라'는 잠든 민족혼을 깨우는 듯 했다.

지난 8월 15일 중앙뮤지컬로는 최초로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에서 진출하는 과정도 그녀의 생애만큼이나 극적이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없어 후원회장을 비롯한 다섯명의 집을 은행에 잡힌 돈으로 비행기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고 현지 교포의 도움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황제에 탄핵 공언을 지켜낸 백남준씨는 "바그너의 그랜드 오페라와 비견될 만한 진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라며 "나는 미친 듯이 박수를 쳤지만 나의 박수소리가 제일 작았다"고 호평했다.

오는 12월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명성황후'는 오후 3시와 7시30분 두차례 공연되며 티켓은 2만원에서 5만원(문의 446-7771)이다. 그러나 화성을 위해 평일 낮공연은 30%할인된다고 하니 뮤지컬을 접하기 쉽지 않은 대학생에게, 특히 불만족한 뮤지컬을 접하기 어려운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문화부

학문탐구는 면학에서부터 달성되게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이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대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하는가? 학교 체육대회에서부터 학부, 동아리, 총학생회주최 체육대회까지 일년 내내 체육대회를 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경우에는 거의 달포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무슨 모임이 그다지도 많은가? 학교 앞 식당, 호프집, 다방 등 어디 어느 곳에든지 우리 대학생들은 모여 있다.

선거는 어떤가? 2학기만 되면 고성장애플을 설치하고, 강의실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체육대회나 모임, 선거 모

두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의 기본인 면학이 이루어진 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질서의식은 어떠한가? 강의실에 들어가면 어지러진 책상, 낡은 투성이 칠판, 휴지통이 되어버린 강의실 바닥.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강의가 되고, 진정한 수강이 되겠는가?

대자본은 또 어떠한가? 엄연히 부작할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벽면이나 누더기 같이 부착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한 장만 붙이면 될 것을 왜 5장, 10장씩이나 붙이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를 일이다. 그 종이 한 장도 해외에서 수입된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의범절에서는 어떠한가? 강의 도중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보름이고, 때리고 잡담하고, 강의실 밖에서 고성방가는 다반사로 하고 있으니 어찌 대학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교수들의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데도 연구실 밖에서 때리고, 뛰어다니고...

도대체 가정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예의범절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아닌가. 대학생들이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 무엇보다 중

대학생활 달하나 건강에

요한 요소다. 강의실부터 집을 지키자. 대자 보는 규정된 게시판에 한 장씩만 붙이고, 단 한장의 대자보 용지도 절약하는 절약정신을 키우자.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교수와 마주 치면 피우던 담배를 등뒤로 숨기는 행위는 아직도 우리 대학생들에게 예의범절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좀더 확대시켜서 예의범절이 체제화된 대학생이 되자.

대학이 학문탐구와 인격도야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면학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예의범절이 체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생의 기본 자세이다.



설영기
성경대
경상학부 교수

대학에 '춤바람' 불어오

힙합에서 댄스스포츠까지 다양한 장르 수용

대중매체 영향으로 확산 ... 건강유지·친목도모에 일조

대학생 사이에서 '춤바람'이 불고 있다. 요새말로 '한 춤 추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춤의 장르도 다양해서, 이른바 힙합댄스에서부터 댄스스포츠까지 없는 게 없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대, 서울대 등을 비롯한 대학내 춤 동아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비단 학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컴퓨터통신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정식 춤 동아리는 없지만, 지난 학기부터 여학생부처에서 실시한 '스포츠댄스(체조&볼룸)' 단기강좌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조만간 본

교에도 '춤바람'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 강좌에는 1학기에 50여명, 9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2학기 단기강좌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선착순으로 학생들을 제한한 숫자이다. 불교대 학생에서부터 공대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공을 불문한 학생들이 손재현(체육교육) 교수의 지도 아래 스포츠댄스를 배웠으며, 남학생들도 또한 다수 참여해 춤에 대한 관심이 다각적으로 나타났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스포츠댄스는 공식명칭이 '댄스스포츠'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정식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

서 불이 일어날 것이다. 각 대학의 무용과 및 체육과에 전공 과목으로 댄스스포츠가 개설되었고, 예술무용단을 발표하던 곳에서 요즘은 사회·생활무용인 댄스스포츠의 발표도 있다.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상명대 무용발표회가 그 예. 본교에서도 98학년도 사회교육원에 댄스스포츠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대학생들 사이에 춤이 유행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공중파와 케이블 음악채널을 통해 날마다 수도 없이 쏟아지는 가요 상륙 중에는 춤과 '공생관계'를 이룬 댄스가요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춤도 유행하는 것이다.



사진은 포크댄스를 추고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

또한 건강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커져 특히 여학생들은 폼메유지를 위해 춤을 선택하기도 한다. 신나게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해지니 여가 활용으로 그만인 셈이다. 더욱이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면 사회적 대인관계

또한 원만해진다. 주위에 '한 춤 추는' 친구들이 있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라, 춤을 왜 추냐고, 어찌면 그들은 대답 대신 이 노래를 부르며 광광춤을 출지도 모른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김미경 기자

볼투명한 한국독립영화
다양한 장르 포괄 ... '저항'의 메시지 전달
상업적 대자본으로부터 독립 꿈꿔

'영화'란 장르에 '독립'이라는 수식어가 붙게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항'이나 반체제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학생운동 혹은 노동운동의 실체가 담겨진 영상을 생각하며 '기존의 영화·저널리즘'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들을 담아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독립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장르의 정의를 알기보다는 단지 사회전반에 대한 개인적 자각에 관한 영화와 사회적(政治的) 영화, 사회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실험영화와 예술영화 등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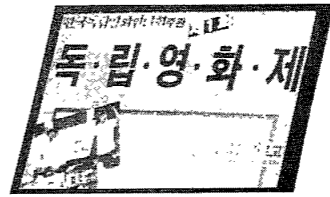
서울에전 강한섭(영화학)교수는 지난 11월 19일 '97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와 전개방향을 들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독립영

화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한국에는 과거 미국과 같은 메이저(대자본을 들여 상업·오락성이 높은) 후한 영화를 제작하는 기업이나 제작자가 없다"는 것을 꼽았다.

이에 연극영상학부 민병록교수도 "현재 한국독립영화는 혼란의 시기"라고 동감의 뜻을 표시했다. 무엇보다부터 독립이란 무엇을 위한 독립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표현방식에서도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다양화된 한국독립영화의 원류를 살펴보면 70년대 유신시대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70년대 영화제작인들이 80년대 영화운동을 주도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80년 광주항쟁이후에는 대학가에 '영화운동'이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이르고 이때 '서울영화집단'이 82년 영화단체로서 최초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84년에는 국립극장 실험극장에서 '작은 영화제'를 실시하였고 이후 작은 영화라는 용어가 현실을 비판하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갖는 열린영화를 지명하기에 이른다. 86년 '서울영화집단'을 비롯한 영화운동들이 탄압을 받은 사건이 있었으나 87년에는 노동 및 학생운동과 연대하여 영화를 만들어 갔다. 영화운동의 의미가 강해지자 '장산곶매', '민족영화연구소', '노동자뉴스제작단'이 결성됐으며 이후 연대를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작자 자체를 대하는 사람들이 진행됐다. 운동을 전제로한 영화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술영화의



모습과 대립하게 됐으며 이후에는 '다양성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립영화협회 최정호(24)씨는 다양한 독립영화의 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체제에 대한 독립이며 돈이 없으면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현실에서의 독립"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영화란 삼성이나 대우같이 대자본으로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 단순소라이 아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영화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독립영화를 거부하는 많은 단체들이 혼란기를 거친 독립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가난한 영화계를 극복하기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최진 기자

책소개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인재대의 김현규 교수가 욕을 담당하게 평가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쓴 저서이다



욕이 언어의 한 영역에서 어떤 언어적 락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욕 안에 인간의 성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한국인들의 인간에 대한 3대 악덕(바보, 병신, 폐륜)으로부터 욕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지 규명하고 다양한 여운을 들어가면서 쓴 욕의 역사를 복원해내고 있다.

'욕'을 읽어보며 욕이 왜 욕인지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출판사:시계출, 정가:9천원

전국의 설원에서 통한다!

전국의 스키장 곳곳에서 터지는 환상의 겨울축제-스피드011이 함께 합니다

SPEED PASS (1일 무료 리프트 이용권)를 신청하세요!

■ SPEED PASS는 전국 4개 유명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일 리프트 이용권입니다.

- 행사기간 : '97. 12. 1 ~ '97. 12. 11
- 배포대상 : 행사 기간중 SPEED 011에 신규 또는 전환 가입하신 고객
- 배포방법 : 12월 11일까지 가입영수증을 가지고 SK텔레콤 지점에 방문 하시면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 * 단, SPEED PASS는 SCH-220F/SCH-350(상), SD-3100V/SD-3200P(UG), HIP-301D(현채)로 가입 또는 전환하신 고객만 해당되며 조기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 SPEED PASS 사용요령 - 사용기간 '97. 12. 1 ~ '98. 1. 31 - 사용장소 : 우주리조트, 배스스타운, 보광 위닉스파크, 현대 성우리조트 - 사용방법 : SPEED PASS를 스키장 리프트 매표소에 제시하시면 1일 무료 리프트 이용권 1매를 드립니다.

SPEED 011 경품대추제

퀴즈를 맞춘 스피드 011 기준 / 신규고객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011은 전국 지방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깊숙한 곳에서도 매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오후대상 : 스피드 011 기준 / 신규고객 ■ 오후기간 : '97. 12. 1 (월) ~ '97. 12. 13 (토)

■ 오후방법 : PC통신 (SK텔레콤 기업포럼), 인터넷 (http://www.sktelecom.com).

우편접수 (12월 13일 소인분 까지 유효) * 정답과 본인의 이동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우편접수처 : 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996-1 진성빌딩 15층 SPEED 011 경품대추제 담당자 앞

■ 상품내역 : - SPEED 011 금상 (11명) : 스키장 크로스마스 패키지 (1박 2일 / 4인가족 기준 / 숙박, 리프트 이용권) - SPEED 011 은상 (11명) : SK유니콘 (10만원 상당) - SPEED 011 동상 (1,111명) : SPEED PASS 각 2매

■ 당첨자 발표 : PC통신 및 인터넷 오후모 - SK텔레콤 기업포럼 및 인터넷 홈페이지상 발표, 영서 오후모 - 개별통보

■ 발표일자 : '97년 12월 17일 (수)

SPEED 011 스키 페스티벌

■ 장소 : 전국 유명스키장 (우주리조트, 배스스타운, 보광 위닉스파크, 용평리조트, 현대 성우리조트) ■ 기간 : '97. 12. 10 ~ '98. 2. 28

■ 프로그램 : SPEED 011 무료 통학서비스, SPEED 011 스키렌터, SPEED 011 사냥의 작은 음악회

■ 문의전화 : (02) 5289 - 554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통신체면

● 고객센터 (연락처) 02-22-0011 ● FAX 02-6628-0110 ● PC통신 05118181-01102 ● 4F 0531 4242-01102 ● 전화 0622 5104-01102 ● 0622 0552 2305-01102 ● 0622 0421 2768-01102 ● 0622 0371 466-01102 ● 0622 0564 433-01102

영상매체비평

-영화편 '편지'

"P.S는 쓰지 말았어야 했던 편지"



'편지'는 한국영화의 멜로복고를 예견한다.

신선한 뉴웨이브 멜로 '접속'이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도 계절을 타는 상품인지라 겹겹이와 코미디, 감각적인 도시남녀의 풍속도가 지나간 자리에 차분하고 애뜻한 러브스토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중 '편지'는 가장 예쁘게 울 줄 아는 배우라는 최진실과 솔직담백, 친근한 매력 이 돋보이는 박신양을 주연으로, '은행나무 침대'의 사랑의 테마를 이어 받는 신씨네의 후속작이다.

라는 우연히 떨어뜨린 지갑, 손수건, 책을 계기로 사랑이 시작되고, 갑작스런 사고나 불치의 병으로 사랑이 망가졌다가, 다시금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새 희망을 찾는 이야기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환유(박신양)의 직업은 수목원의 연구원으로 설정해 영화 내내 꽃과 나무, 숲의 싱그러움이 풍어나가며, 정인(최진실)을 곡문과 대학원생으로 설정해 시가 주는 '낭만성'이라는 선인권을 심본 이용하가거나, 그들의 사랑이 순서는 자리가 간이역, 풍근 기차, 통나무집, 우체통이 되게 함으로써 동화처럼 어여쁜 세계를 창조한다.

으나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환유의 뇌종양일 뿐 유학이나 경제적 인 어려움 등은 사소한 다름거리 이상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멜로드라마에서 보아온 대로 두 집안 사이의 경제적 차이, 신분 차이, 종교 갈등 등이 끼여들 여지도 주인공들을 어려서 일찍 부모를 여윈 인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말끔히 소멸 시킨다.

죽은 환유로부터 보내진 그 안타까운 마지막 편지가 끝나갈 때 또 다시 눈물을 흘려준다. 이 영화는 죽음의 순간을 두 번 반복하고, 두배로 강조함으로써 최후의 경제력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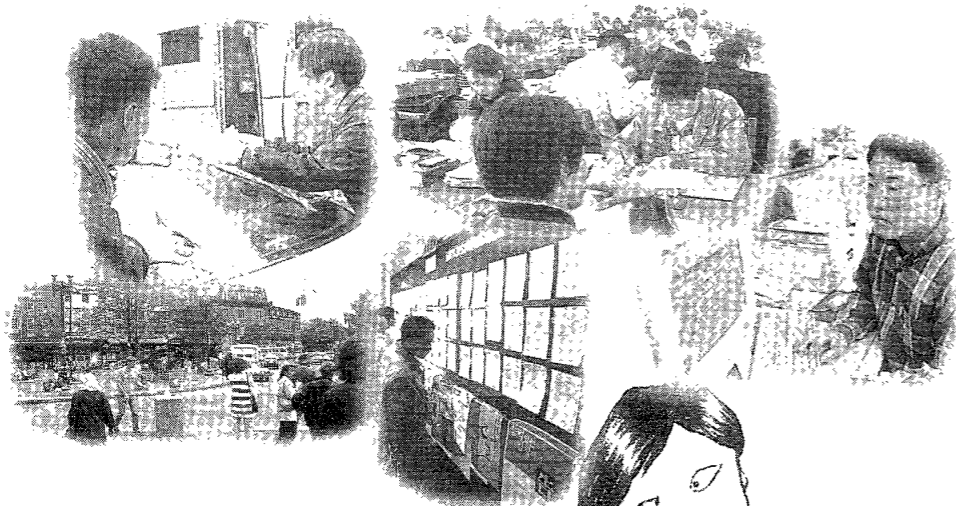
그러나 영화의 에필로그, 우느라 정신 없었던 틈을 타 정인은 열령동방 입신을

했었고, 영화의 도입을 열었던 정인의 나레이션은 환유라는 이름의 소나무를 찾아온 정인과 꼬마아이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 순간 영화는 자신이 간단히도 처처해 버렸던 과거를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그려 넣고야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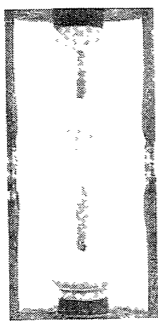
두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단단히 보장하기 위한 소나무 한 그루만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깎듯 필요하고, 남자가 떠난 자리에 남자가 들어서는 건 당연지사, 그리하여 환유의 아들을 탄생시킨다. 남녀의 사랑의 결실을 자식, 그것도 사나이로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영화에 면면히 흐르는 전통을 또다시 확인하며, 이 영화의 '정통멜로'라는 타이틀에 고개를 끄덕인다.

한승희
본교 영화학 석사과정

방학, 어여한 대학생들의 연장



"돈은 없고 시간은 남는데 긴 겨울방학동안 난 뭐하지?"



4년 대학생할 · 2년 방학생할 "알찬 계획과 성실한 실천만이 후회를 예방한다"

방학이 대학생들의 반이래 해도 과언은 아니다. 1학년 입학때 대학생들의 낭만을 꿈꾸는 신입생치고 화려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계획하지 않는 이가 없을만큼 대학에서 방학은 최고의 절정이다.

그러나 방학을 맞는 대학생들이 열려야 할 것이 있다. 방학도 대학생들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대학생에게 방학이란 학교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학문탐구의 자음에 의한 많은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사회로 나가기위한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대학원 남아있고 학생들도 이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을 맞는 대학생들이 열려야 할 것이 있다. 방학도 대학생들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대학생에게 방학이란 학교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학문탐구의 자음에 의한 많은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사회로 나가기위한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대학원 남아있고 학생들도 이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을 맞는 대학생들이 열려야 할 것이 있다. 방학도 대학생들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대학생에게 방학이란 학교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학문탐구의 자음에 의한 많은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사회로 나가기위한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대학원 남아있고 학생들도 이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을 떠나겠다는 계획 앞에 조금은 느슨해진 것이 사실일 것이다. 산더미 같은 계획 앞에 하루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간다. 내일부터 다음주부터 혹은 다음달부터 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간다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방학을 맞는 대학생들이 열려야 할 것이 있다. 방학도 대학생들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대학생에게 방학이란 학교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학문탐구의 자음에 의한 많은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사회로 나가기위한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대학원 남아있고 학생들도 이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례 1 고시족

올해 3학년인 이모양은 다가오는 겨울 방학을 제 2의 고3 여름방학'으로 여기기로 했다. 그 시절, 그때처럼 학문에 정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취업이 당장 내년이면 현실로 다가온다는 생각에 이모양은 가슴이 답답하다.

4학년이 되면 이모양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동기들을 볼 수 없다. 많은 동기들이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고 해외연수·어학연수·전문학원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대란... 이대로 있다가는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이모양은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위해 각종 취업관련 자료를 찾아 본다.

'여성차별 관습적으로 행해진다', '토익, 7백점으로도 안된다', '대기업 인사 커트라인, B학점·토익 8백점 이상' 신문기사 제목이 이모양을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든다.

그녀의 목표는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인 흥기업. 흥기업은 '무한정성장시대'를 대비해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라 한다.

이모양은 고개를 가우뚱한다. '미래를 예측해? 변화를 주도해?' 그러나 신문을 끝까지 읽은 이모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인다. '결국 토익 시험하고 면접 시험 잘 보라는 소리군'

도서관을 나온 뒤 이모양은 유명 외국어 학원에 들러서 토익과 영어회화 강좌에 접수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모양은 손에 3권의 책이 들려 있다. '기초직무능력검정사', '토익 만점', '아하! 면접'.

집과 도서관, 그리고 학원 등 실내에서는 한 번 맞지 못할 이모양은 올해 겨울방학은 따듯할(?) 것이다.

김미경 기자

사례 2 배낭족

마지막 시험을 기분 좋게 보고 강의실을 나선 동국군. 이제 불행할 행복 시작이다. 그동안 알뜰 살뜰 모아온 비자금으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 동국군은 학교도 돌아보지 않은채 교문을 나선다. 집으로 돌아와 코펠이며 먹을것 등을 챙기고 두툼해진 배낭을 메어보기도 한다. 참 기차역에도 배먹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리던 '배낭을 둘러맨' 배낭여행의 아침이 밝았다. 기차시간을 넉넉히 남겨 두고 서울역에 도착해 다시 한 번 앞으로의 여행계획을 점검해 본다. 기차가 플랫폼을 떠나자 동국군은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고 앞으로의 여행을 그려본다. 배낭여행에는 젊음의 낭만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동국군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

어느새 잠이 들고 눈을 뜰 때 졸기차는 목표한 호반의 도시 춘천에 도착했다. 서울과 비교도 되지 않는 신선한 공기와

도지의 여유가 코 끝에 전해온다. 쉬엄쉬엄 아는 절을 찾아가 속속을 정한다. 그리고 배낭여행의 최대 장점인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위해 이제 바쁘게 돌아다닌다. 조시해은 명소란 명소는 다 돌아보며 사람사는 모습과 역사를 찾아다닌다.

절에서 주는 밥으로 저녁을 때운 동국군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비록 입에는 잘 맞지 않지만 웬지 고졸스런 분위기에 조율한 한끼가 정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일거리 본다. '유럽으로의 여행이 환상승으로 좌절했지만 이제 아무렇지 않아'

'우리나라를 먼저 알아보는 일은 백번 잘하는 일이지' 파곤한 몸으로 내일의 여행을 꿈꾸는 동국군은 이번 방학이 최고로 기억에 남는 방학이 될 것같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어본다.

문화부

사례 3 아르바이트족

영문과 1학년인 동국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다. 그건 바로 어학연수.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부모님께 부탁을 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이젠 나도 대학생인데'라는 생각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다. 그때 문득 동국수는 아르바이트를 생각해 낸다. 힘 안들면서도 보수가 많은 일을 택하려 하다가, 아무래도 어학 연수가 목적이니 전공과 관련된 일을 업종을 고르기로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영어문서의 번역일.

동국수는 PC통신상의 아르바이트 안내를 통해 종로구에 위치한 번역개발원을 찾았다. '번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면접 했지만, '두드러라, 열릴 줄이다'라는 문 앞의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낸다.

동국수는 실력테스트에 거뜬히 통과하고는 번역기초를 위한 몇 권의 책과 함께 일

거리로 받아온다. 영어사전, 국어사전, 번역서적 등을 찾아 가며 일을 하는 동국수의 손에서는 어느새 땀이 난다. '이 말이 적당할까, 저 말이 괜찮을까' 고민하며 좀더 자연스런 문장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동국수는 번역한 원고와 한 장, 한 장, 늘어갈 때마다 기쁘기만 하다. 처음에는 문장이 매끄럽지 못해 전문번역가들의 빨간펜이 많이 그려졌는데, 언젠부터인가는 꽤 능숙한 솜씨를 보인다. 그림에 따라 원고로도 높아지고, 어학 연수도 점점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 매우 흐뭇해하는 동국수.

이런 겨울방학은 동국수에게 매우 뜻깊은 방학이다. 어학연수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공부에도 많은 보람이된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문화부

미아리

합동 토론회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을 시작으로 96년 클린턴 대통령과 발 들까지 후보들간의 합동토론회는 한국 대선운동 정세에서는 볼 수 없는 일로만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화면인 미국대통령 후보진영이 자신의 정책공약을 위해 논쟁을 펼칠 때의 모습을 한국 국영방송국에서 재방송할 때 우리들은 언제쯤 저런날이 올까라는 마음속의 열원만을 품어왔었다. 여론매체의 중요성 보던 대선후보자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말이다. ▲그런데이제부터 지난 26일 제 15대 대선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처음으로 가졌다는 것은 대선정치운동이 이젠 민주화에 가까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사, 매체등에서 몇차례 이상이나 개최한 대선후보자 개별 토론회는 각 당의 이미지 쇄신과 정책공약을 중점으로 이야기 할 뿐 정당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타당성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 자신만의 주장이나 공약만 흥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주최측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다. 패널토론회자선정부터 시작해서 질문순서, 질문문항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합동토론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끄는만큼 몇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끝이 났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시간제약과

후보자들간의 연정이었다. '대통령이 버린자선' '대통령의 양아들'이같이 신문지상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비유들이 각 후보자들의 말에서 직접 튀리고 1분 30초동안 분야별 정책을 조리있게 이야기 하는 후보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다소 여유도 가졌던 개별토론회와는 달리 이번 합동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후보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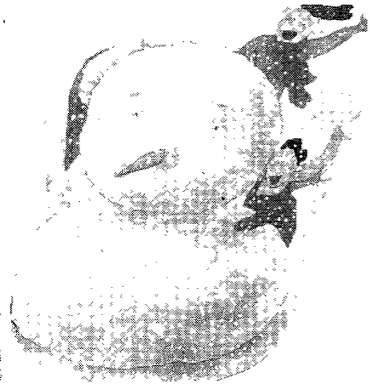
흥분 진짤을 생각한다면 족히 몇배는 높았을 듯 하다. 그러나 이를 관망하던 국민들의 반응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합동토론회를 출발로 대선운동은 이제 그 열기가 한참 무르익기 시작했다. 각 후보자들간의 이권다툼하는 모습보다는 솔직담백하게 유권자들 앞에 다가서려는 대선주자들의 할 일이 아닐까. 조인선 사회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겨울방학



△경제도 어려운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을까?

△나에게 이제 겨울방학이란 없다. △몸 조심하고 알찬 겨울방학 보내세요. △겨울내내 뽀얀 방에만 있기 싫다. 학교나 가지.

△즐거운 겨울방학을 군대에서. △등록금은 자기 '손'으로...

△12월 19일 겨울방학 시작, 난 군바리 시작이다. 후후!

△비록 경제는 얼얼지만 겨울방학은 따뜻하길.

△겨울방학을 알차고 보람있게? 첫째, 따뜻한 난로를 마련한다. 둘째, 두터운 이불자리를 마련한다. 셋째, 만화책 한 수레를 빌려온다. 넷째, 꿀 한박스를 마련한다. 다섯째, 위 네가지를 가지고 따뜻한 겨울방학을 맞이하자!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던 동심의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크리스마스 지나면 신정, 그리고 구정(설날) 그러면 방학 다 끝나는데? △난 이번 방학에 비행기 탄다.

△이번 방학은 스키여행이나? 아니다 내 주제에 맞게 눈썰매나 타야지.

△'98년도를 알차게 보낼수 있는 준비기간이 되어야!

△겨울방학은 다함께 겨울잠 잡시다. △여름방학 지난지가 언젠데 벌써 겨울방학이라니...

△취업도 안됐는데 겨울방학이 뭔 소용이야?

△화이트한 겨울방학 모든 동국인의 바람입니다.

△방학이면 뭐해, 성적표가 오는데. △이번 겨울방학도 방학(?)

△올해 겨울 방학은 온난화 현상으로 여름방학이 되다.

△우리 경제도 빨리 겨울방학이 끝났으면...

△겨울방학 하루 전날은 대신!

△눈썰매 타러 가자!

△겨울엔 군복과 군고구마를 항상 곁에 두고...

반성과 개혁 통한 '우리들의 학생회' 기대

이 겨울이 지나면 4년동안 정들었던 동학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제 30대 총학생회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밤 11시까지 열람실을 돌며 투표를 강제로 권유 하기도 투표율 50%를 갠실히 넘긴 결과는 낙선한 후보뿐 아니라 당선된 후보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처럼 학우들의 무관심만이 문제인 것인가?

원론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 조직이 필요하지 학생회를 위해 학우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설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상가나 이론가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학생운동가가 되려면 일반학우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학우들보다 반보(半步) 앞서서 학우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회 권력을 쥐거나 쥐려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몸을 멀리 둔 채 손짓만으로 학우들을 부르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회'를 건설해야 하며 '당신들의 학생회'에서 '우리들의 학생회'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총학생선거는 매스게임식의 대중 선동이나 이분법적 선택유도, 인맥이나 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이 흥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칫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려는 세력에게 정치적 안전판과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표는 의무'라는 식의 주장에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한다.

김진(법과대 법학과)

술은 약인가, 독인가 자제의 미덕 보일줄 알아야

성은 박이요, 이름은 카스라. 그는 술문과 오학년이 재학생이며 학교 인근에 위치한 주점에 기거하고 있다. 보다 나은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는 투철한 학과 의식과 일관된 고집정신으로 항상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어제 죽림에서 실시된 기말고사에서도 그는 가장 많이 마셨고, 가장 오래 버텼으며, 가장 치열하게 포장을 부렸다. 교수님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다같이 입을 모아 그의 술은 노력을 치하했다. 동료 주당들 역시 그의 실력을 부러워 했다. 철저한 복습, 다시말해 해장술이 과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의 카스는 우등생이다. 그런데 실제로 카스와 비스무리하게 노

력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관공특구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도 한 몫 하거나 급변하는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한 체 재 삶을 포기하려 드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문제를 던져주고 싶다.

가끔은 세상을 심오도쯤 기우뚱하게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옛보기의 미학 중에서도 세상의 균열을 엿볼 수 있는 해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봇대나 아스팔트와의 너무 잦은 교접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상룡(인문대 국문학과)

보람된 대학생 생활 자신감에서 시작

어느덧 대학생 생활 1년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다. 하지만 대학 1년을 보내며 알찬 날들보다 후회되는 날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대학의 낭만이라고 불리는 칸느, 지각, 대충에 성적표는 F학점으로 도배하고 도서관은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나만이 하는 것일까?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나?'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있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이라곤 할까?

선배들이 말하기를 소위 1학년은 즐기는 학년, 2학년부터는 머리를 싸매 가면서 공부하는 시기라고 한다. 과연 그게 정답일까? 한번 좀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대학 1년은 어쩌면 대학의 첫 단추를 끼우고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지도 모르는 절대적 부분이다. 놀더라도 무엇인가 나만의 능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만이 대학생 생활에 있어 보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1년의 생활은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98년은 보람된 대학생 생활을 보내길 다짐한다. 최상환(법정대 법정책부)

팔문(八問)

그대는 코스모스 핀 강가에서 본적이 있는가.

그대는 강물의 아담담지만은 않은 흐름을 느껴 본적이 있는가.

그대는 그 곳에서 발을 씻어 본적이 있는가.

그대는 팀버팅 강을 걸어 들어가 본적이 있는가.

그대는 강 한 가운데 서서 그 흐름을 본적이 있는가.

그대는 그대 발에 부서지는 물에 대해 아파해 본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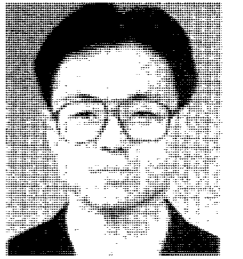
그대는 그 물에서 헤엄을 치려고 해 보았는가.

그대는 정녕 그 강물이 되고 싶지 않은가.

김정원(문과대 한국어문학부)

동문칼럼

네분의 총장님



김성주 국교87년졸, 본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83년에 본교 국어교육과에 들어와 지금 시간 강사를 하고 있으니 15년째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다. 갓 대학에 입학했을 때 총장이 황수영 선생님이었고, 지관 스님, 민병천 총장을 거쳐 현재 송석구 선생님이 총장으로 계시니 내가 본 총장만 해도 네 분이 된다.

대학 1학년때 1학년 과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직원사를 떠난 적이 있었다. 우린 부어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고, 총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 인사말이 너무나 길어 부여에서의 일정이 다소 조정될 정도였다. 그때 그 긴 인사말을 한 분이 황수영 총장이다. 나는 황수영 총장의 인사말이 왜 길었는지 정확히 기억한다. 당선께서 발견에 관여하신 '임신 서거식'이란 말 때문이다. 이 둘을 발견할 당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긴 말씀을 했던 황수영 선생님의 열의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관 스님이 총장을 할 때다. 단지 우리 학교니까 스님도 총장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는 불교를 조금도 몰랐기 때문에 지관 스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가 보다. 군대를 갔다오고 조교를 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부터 불교, 불교미술, 고건축 등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불교 관계의 글을 읽으면서 지관 스님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꾸려 나가면서 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본교의 총장은 송석구 선생님이다. 송석구 교수님이 우리 학교의 총장이 되면서,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송총장님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 난 그때마다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본교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본교는 좀더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이런 내 의견이 때로는 친위세력이니, 여담이니 하는 우스갯소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내가 '세력, 텃' 등의 어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이제 후배에게 말한다. '우리 학교가 변하고 있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더 좋게 만들자고...'



동국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이제 군입대를 하는 모든 농·연식구를 축하합니다. 모두 몸 건강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푸름누리 김상현군의 생일을 축하해요. 앞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경아아, 생일 축하해! -자영S, 자영, 경화 △진현아, 득남을 축하한다. 잘기워라. -산공 94일동 △정현아, 생일 축하한다. -일기 △은정이, 생일 축하한다. -민영과 친구들 △은희야 생일 많이많이 축하해. -윤희를 사랑하는 정희 △겨울에 태어난 아이 온진, 생일 축하해. -해달일동 △민·사 일일호프 잘된거 축하한다. 모두들 열심히 해주시고 고마워요. -인이별 97 △용이오빠. 12월14일 생일축하해 꼭! 꼭! 건강하고 행복하길 -동생 진이가

△12월 4일, 1백일이다. 우리만 아는 그들의 1백일이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군요. 농·연의 모든 학우 여러분 97년도 사업하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경당 2학기 수련 무사히 끝났습니다. 경당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알립니다 △12월 6일은 The Dongguk Post 송년의 밤. 많이많이들 오세요. -Post 후배기자 일동 △사희희 현자누나 12월 28일에 결혼합니다. -Entropy

그리고... △정은, 성은 누나 몸 건강하세요. △군대가는 태환이 형, 상수, 정원이 모두 몸 건강히 다녀오도록 해라.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군요.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아 오빠 군대 잘 다녀오세요. △농·연의 새로운 집행부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이야 군대가기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얼마남지 않은 민간인 생활 열심히. -신방 거북이

은방글

축하합니다

△12월18일이 친구 원형이와 그의 애인 1천일 이래요. 미리 축하를 보냅니다. -그의 가장 큰 친구 △제 19대 국사학과 학생회 여러분 1년간 수고 많으셨구요. 국사학과 94학번 김은석 학우의 제 20대 민족 국사학과 학생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양 △기쁜날 기분 좋은날 사랑하는 너의 생일 해영에게 -진 △입대를 축하해! 상영 12월11일 -너의 사랑하는 짝방 △지은아! 오늘 너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KJ △해영아 이거 볼때면 나 생일이 지났잖지. 그래도 생일 축하해. -너의 벗 △늦었지만 연우언니의 27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동욱 18·19기 일동 △6월 인숙이, 20일 보영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걸로 때운다. -어인9 △전산통계 93학번 김영진 보아라. 학회장 된걸 축하해. -TOMMY △수진·함미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어는 소녀가

수고하셨습니다

△동·신 기자들! 지난 1년동안 신문 제작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 험한 산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제일 강하고, 제일 멋지다는 걸 잊지 마라. 자부심!! 그리고 펜!! -평이 쓴다 △NHK 일일호프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동욱회 10기 임원단 여러분 1년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동욱회 화이팅 △불교학생회 32대 임원단 선배님들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33대 임원단 열심히 해봅시다. -왕 나서기 △도·다·리 2기들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3기들이 열심히 해라. -떨어진 동

△관경(야) 총회가 잘 끝났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앞날이 되시길 빌며...

열심히 하시다

△클래식 감상 동아리 필하모니의 14대 회장단들에게 열심히!! -필하모니의 13대 회장단 △승희누나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누나가 원하는 걸 이루길 바래요. 진심으로... -멋진 싸이 △영화모임 '소낙비' 차기 회장은 열심히! 97년도 열심히! 모두들 열심히! -꺼져가는 화장 △법정학부 2학년 96학번 남학우들이 군대를 가요. 문병식, 김동일, 임택준, 임승락...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어는 9601

그리고...

△사랑하는 은하야 힘내. 울지 말고 비웃어! -이쁜 언니 △효진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우리같이 수업 쟁거만큼... -당신의 회

다량관 학생·문화관 그릴 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월, 화, 수, 목, 금. Rows: 두부김치(1200) 새우볶음밥(1300) 어묵국 백반(1500) 후라이드치킨(1500) 오징어찌개(1300) 육개장(1500) 오징어까스(1300) 어묵볶음(1200) 고동여구이(1500) 콩나물볶음밥(1200) 소고기된면국(1200) 집채밥(1500) 불고기버림밥(1500) 감자수제비(1200) 된장찌개(1500)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columns: 월, 화, 수, 목, 금. Rows: 석어찌개(2800) 삼겹살김치볶음(2800) 돈육김치찌개(1200) 커리라이스(1200) 따로국밥(3000) 집채술밥(2800) 폭찹(1500) 된장찌개(1200) 삼계탕(3000) 이면수육(3000) 생령탕(1300) 튀김술밥(1200) 감자탕(3000) 간짜장밥(2800) 오징어볶음(1300) 만두국백반(1200) 콩치통조림찌개(3000) 비후까스(3500) 콩나물버림밥(1200) 어묵국(1200)